

SK텔레콤, 18세 어른의 홀로서기 응원 나선다

**- ‘SK텔레콤 오픈 2021’서 보호 종료 청소년의 자립 지원하는 행복동행 캠페인 시행**

**- 골프대회 현장운영요원 참여 기회 제공… 사회 활동 통해 책임감과 협동심 함양**

**- 선수들이 버디를 기록할 때 마다 적립되는 ‘행복 버디 기금’ 통해 장학금도 전달**

**-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단과 함께 제주 지역 보호 종료 청소년에 대한 추가 지원 추진**

|  |
| --- |
| **엠바고 : 6월 6일(일) 오전 9시부터 보도 부탁드립니다.** |

**[2021. 6. 6]**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오픈 2021' 골프 대회에서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행복동행 : 함께하는 첫 발걸음'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행복동행 : 함께 하는 첫 발걸음'은 보호 종료 청소년의 독립을 지원하는 캠페인이다. 보호 종료 청소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청소년을 말한다.

SKT는 제주시와 제주시 산하 홍익아동복지센터, 제남아동센터, 시온빌 자립생활관 등과 함께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게 'SK텔레콤 오픈 2021' 골프 대회 현장운영요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대회 참가 선수들이 버디를 기록할 때마다 쌓이는 기금을 통해 장학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 27명은 'SK텔레콤 오픈 2021' 기간 동안 스코어 보드 운영, 현장 통제 등 대회 운영 업무에 직접 참여해 사회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운영 조직의 일원으로 다양한 동료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감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SKT는 보호 종료 청소년의 독립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행복 버디 기금'도 운영한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버디를 기록할 때 마다 적립되는 기금을 모아 장학금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SKT는 제주 지역 보호 종료 청소년을 꾸준히 지원하기 위해 제주를 연고지로 삼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축구단과 협력해 향후 홈경기 진행 시 현장 운영 업무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홍익아동복지센터 허철훈 센터장은 “제주 지역 보호 종료 청소년을 위해 체험형 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단순히 지원금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닌 골프 대회를 운영하는 구성원으로 사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SKT 오경식 스포츠마케팅그룹장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보호 종료 청소년이 이번 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성공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SKT는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행복한 동행을 지속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ESG 경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SK텔레콤 오픈 2021'은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솔루션을 적용한 TV에 중계에 나선다. 가상의 3D 코스 위에 볼 낙하지점, 볼 궤적, 비거리, 남은 거리, 샷 분포도 등 각종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또한 SKT의 미디어 빅테크 기술을 활용해 현장 잡음이 제거된 생생한 영상과 선수들의 스윙 동작을 120프레임으로 변환한 슬로모션도 시청할 수 있다.

|  |
| --- |
| ※ 사진설명  SK텔레콤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핀크스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오픈 2021' 골프 대회에서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 '행복동행 : 함께하는 첫 발걸음'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사전 교육을 받는 모습이다. |

**▶ 관련 문의: SKT PR실 전략 PR팀 윤태구 매니저(02-6100-3816)**

**<끝>**